



※ 다기능 접속함 방수시험중

(주)두리계전의 경영이념은 “최선, 최고”이다. 고객을 최우선에 두고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적의 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인간 중심의 경영을 통한 복지 사회 건설에 앞장서기 위해, 꾸준한 기술 개발로 안전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주)두리계전의 경영이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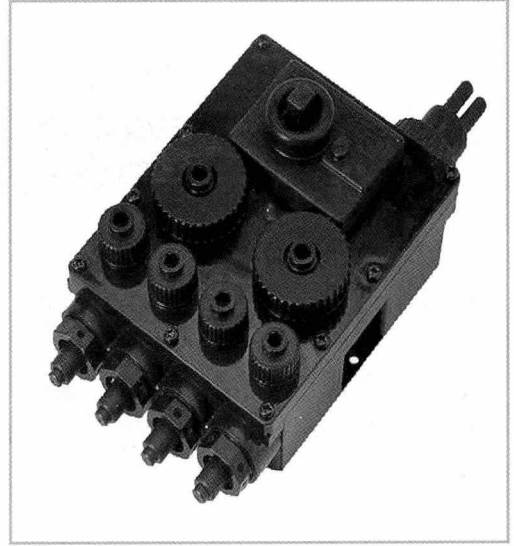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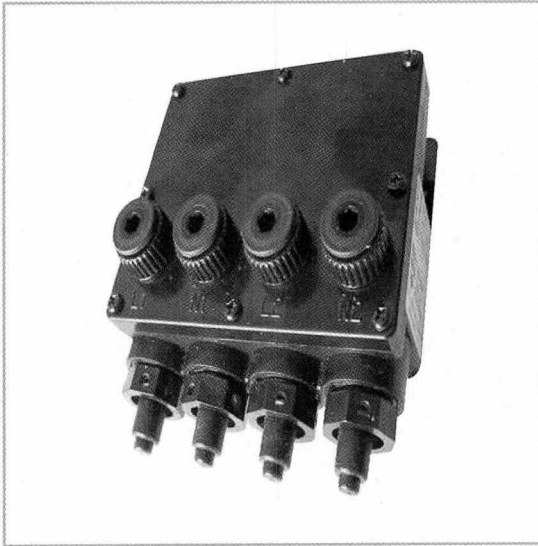
93년도에 수배전반을 제조하는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ISO9001 품질인증과 우수단체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으며 배전반업계에서 최상의 기술이 요구되는 금속피복 배전반(MCSG)에 대한 형식시험도 완료한 상태이다.

(주)두리계전이 생산하는 제품 중 눈여겨볼 제품은 가로등과 관련한 제품들이다. 2001년 가로등주의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 이후 가로등주 내 케이블 접속부 노출로 인한 감전사고를 접하고 중전기제조 업체의 입장에서 이를 방지할 수 없어 제품개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신개념 가로등 분전함인 NEOS(네오스)와 ACERO(에이스로)는 도시 경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방지를 위한 엠보싱 처리 가공을 하였고, 장마로 인한 도로 침수시 이를 감지하고 주전원공급을 차단하여 대형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중 네오스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우수산업디자인(GD마크)제품 선정될 만큼 디자인이 뛰어나고, 에이스로는 작년에 복원된 청계천의 가로등 및 경관제어용으로 설치되어 청계천의 멋진 야경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작년 10월에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가로등 분전함과 관련된 멀티콘은 가로등 등주내에 케이블을 접속하는 방수형 접속함으로써 함 내에 감전방지형 누전차단기가 내장되어 있어 등주내 결로현상이나 침수시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고, 난연성 합성수지제로 완전방수 처리돼 절연성이 우수하고 습기, 물기의 침투를 막아 누전사고 및 누전차단기의 오동작의 우



려와 전혀없이 인명피해 방지에 탁월하다. 또한 램프가 소손될 경우 누전차단기를 작동해 전원을 차단하므로 안정기의 무부하 전력손실을 방지하고 안정기의 수명단축을 예방할 수 있으며, 압착단자를 사용한 볼트조임으로 접속 및 해제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의 제품보다 시공방법이 간편하고, 안전을 위한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2006 국제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인증을 획득한 (주)두리계전의 이하용 대표이사는 아직 작지만 큰일을 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새로운 도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지난 10년을 되새기고 앞으로 10년을 설계하는 항상 생각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며, 언제나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 기술발전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한다.

#### 〈알 림〉

업체 탐방 코너에 참여를 원하시는 업체는 협회 제도연구실로 문의 바랍니다.(02-884-1863)